

(feat. 4Tools)

THE GILTOCH -philic

이수지 개인전 | 임희재 기획

이수지 개인전 | 임희재 기획

2024. 8. 26 - 10. 15

이수지
-philic



먼 곳까지 전시를 보러 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작년 진행된 이수지 개인전 《네 가지 도구》의 전시 서문으로 쓰였던(Write와 Use 모두) 이수지 작가님의 편지에 대한 답이자. 여러분께 전하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선보인다는 일은 설렘과 기쁨, 공허와 두려움 사이 이질적인 기본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닌. 이수지와 임휘재라는 두 주체가 예술가와 기획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나누며, 떠오르는 판단 거리들을 때로는 유보한 채 시간의 밀도를 가능해나가고 있다는 일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값진 나날로 이질적인 기본을 연속시키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 한 명의 예술가를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고 동행하는 일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순간을 기대하며, 서로의 비슷한 무게를 짐작하고, 대상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 스스로를 명징하게 해야만 하는 고민에 휩싸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수지 작가와 저는 수림 아트랩의 2023년 신작지원과 2024년 재창작지원을 받아 2년에 걸쳐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진행된 이수지 개인전 《네 가지 도구》에 이어 《글리치펄릭》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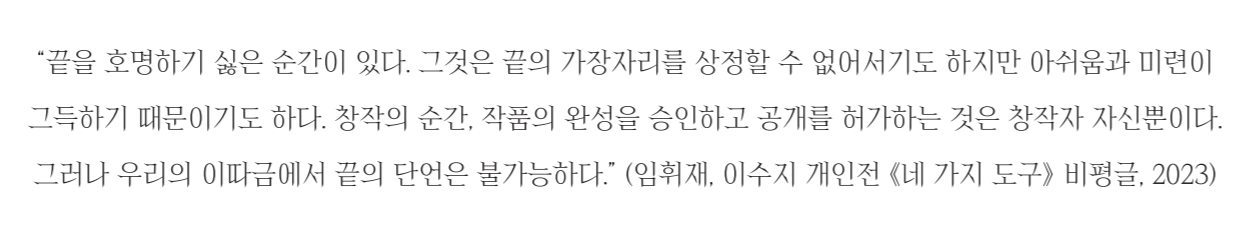
《네 가지 도구》에는 완성된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완성되기 전의 과정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작품의 위치에 놓인 도구를 과정 중, 현재 진행 중의 시점으로 전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도구》에서는 양립 불가능한 것을 양립시키려는 이수지의 시도가 내포한 그와 도구의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적 존재이자 생성을 내포한 긴장과 갈등의 존재인 도구를 중심으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글 또한 함께 배치되어 창작자와 도구의 공진화는 물론, 예술가와 기획자의 공진화 모습을 선보이길 바랍니다.

이번 《글리치펄릭》에서는 창작 과정 이후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글리치펄릭》에서 이수지 작가는 도구 만들기의 과정을 뒤로하고 결과물에 집중하면서 발견되는 글리치(Glitch)에 주목합니다. ‘글리치펄릭(Glitch-philic)’은 실수, 오류 등을 의미하는 글리치(Glitch)와 애호가 의 의미인 필릭(-philio)을 결합한 이름입니다. 이수지 작가는 실수와 오류에 둘러싸인 채 발견한 통제하지 못하는 긴장과 갈등, 그리고 그로부터 탄생하는 미감과 태도에 집중합니다. 이는 과정과 결과의 구분 (불)가능성, 즉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발생한 작가의 포텐셜 에너지의 맥락으로 펼쳐집니다.



Glitch - Bug - 3 Tools - Thought - 2층 순으로 관람하시길 권해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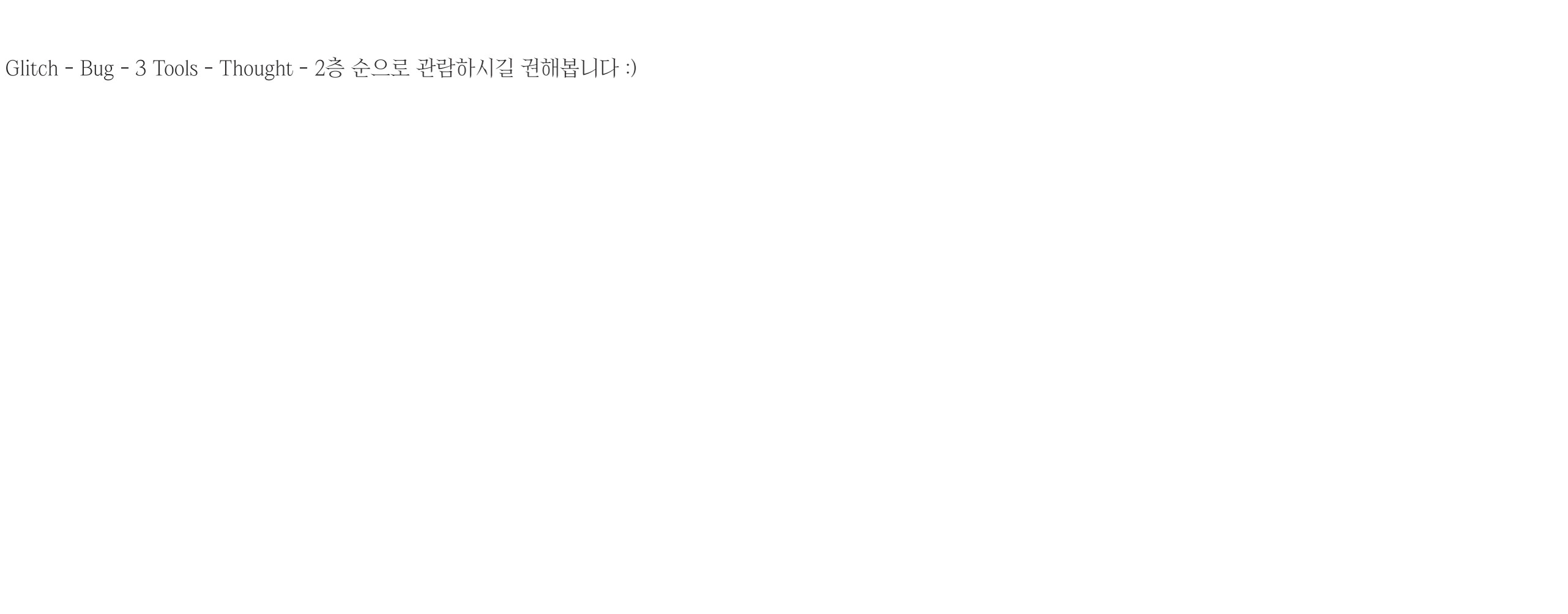
전시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됩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처음 만나는 1층의 방 2개는 각각 글리치(Glitch)와 버그(Bug)의 숨은 의미로 나눠진 공간입니다. 두 공간 모두 《글리치펄릭》에서 선보이는 ‘결과물’이 위치한다는 점은 같지만 작가의 다른 태도로 구분됩니다. 잠시 글리치(Glitch)와 버그(Bug)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글리치와 버그는 모두 프로그래밍, 특히 게임 진행에 있어 제작자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와 실수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글리치의 경우 글리치 발생 이후에도 프로그램, 게임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 게임을 완료를 앞당기거나, 귀한 재료를 얻거나 복사하는 다양한 플레이 방식이 유발됩니다. 이와 반대로 버그는 발생 이후 프로그램,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됩니다.



나눠진 1층 2개의 방은 이수지 작가가 고민하는 작품 완성 승인과 공개 허가 그리고 끝의 단언의 메커니즘에 있어, 그가 구분한 태도와 작품 선별의 방식을 유추하고 엿담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하 공간(Basement)에는 1층의 《글리치펄릭》의 기반(Basement)이 된 지난 전시 《네 가지 도구》의 일부가 그때의 전시 언어 일부를 간직한 채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한편에는 네 가지 도구 중 여전히 유효한 세 가지 도구가, 다른 한편에는 저의 새로운 글이 전시되며 약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변형되고 폐기되거나 보존된 물질과 비물질의 얽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하에는 작년 《네 가지 도구》에 방문하신 분들께는 연속적 기억 소환 장소를,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2층의 공간은 여러분 차지입니다. 이곳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우리가 각각의 요소로 함께 만들어가는 글리치 생산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실을 벽 어딘가에 연결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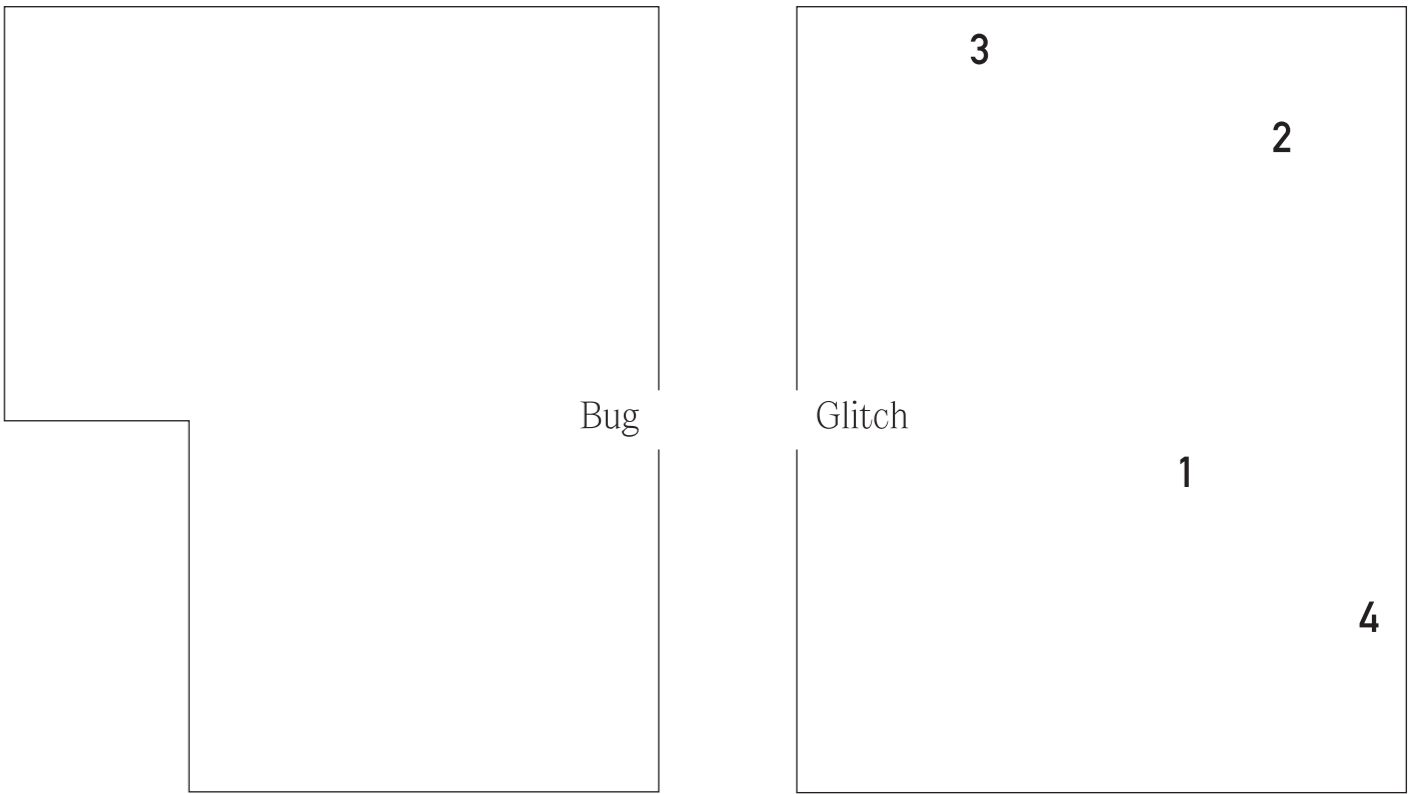
그럼 즐거운 관람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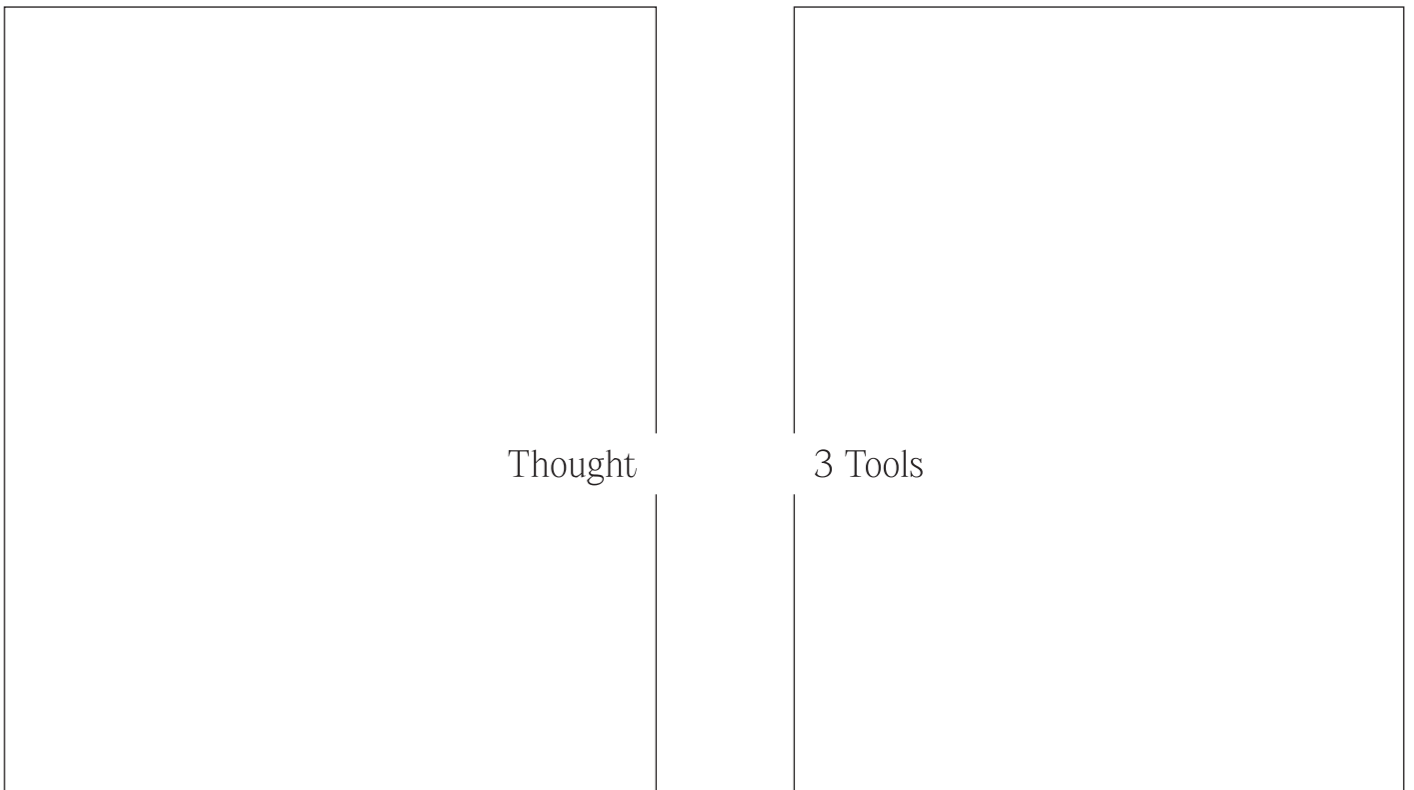
2F



1F



B1



[1F. Glitch] 1 정육면체 | 2024 | 실, 철봉, 레진 | 800 x 800 x 800 2 원통 | 2024 | 실, 레진 | 3 정사각형 평면 | 2024 | 종이, 실 | 1600 x 1600 4 직사각형 평면 | 2024 | 종이, 실 | 800 x 1600 5 글리치 | 2024 | 손 글씨 | 가변크기 6 격자글리치 핸드라이팅 | 2024 | 연필 선 | 800 x 800 7 원 글리치 핸드라이팅 | 2024 | 연필 선 | 800 x 800 8 튀어나온 실 | 2024 | 못, 실 | 800 x 800 [1F. Bug] 1 쓰고 남은 실 십자 군단 500 2 창틀의 목격자 3 바늘 무덤 4 네덜란드에서 공수해 온 소중한 친환경 풀을 쓴음 5 첫번째 실패의 잔해 6 두번째 실패의 잔해 7 세번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8 마지막 실패, 이제 좀 알 것 같음 9 정원이 되지 못해 돌의 도움을 받음 10 합사기 회전과 함께 날선해진 나사못 11 물집이 생겨 작업과 생각을 잠시 멈춤 [B1. 3 Tools] 1 100줄의 실을 위한 합사기 (도구 5-1) | 2022 | 나무, 실 | 가변크기 2 속이 빈 육면체를 만드는 도구 (도구 5-2) | 2023 | 나무, 실 | 가변크기 3 속이 빈 원통을 만드는 도구 (도구 5-4) | 2023 | 나무, 철, 실 | 가변크기 4 도구 5-4의 드림을 옮겨 세우는 보조 테이블 5 작업대 겸 바퀴달린 계단 [B1. Thought] 1 생각 2023 (네가지 도구) | 임휘재 2 생각 2024 (글리치펄릭) | 임휘재 [2F] 예상치 못했던, 의도치 않았던, 계획에 없었던, 당혹스러운, 그런데 웬지 마음에 드는, 아니 어찌보면 가장 좋은, 그런 것을 부르는 말, 실수, 오류, 결함, 착오, 불량, 이상, 문제, 하자, 결점, 고장 빼고.